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8



▶한줄요약
조실스님이 아디카야의 검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한다. 아디카야의 검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난타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남긴 것이라는 것.

붓다가 난타 수행 돕기 위해 남긴 칼은?

뉴델리에서 며칠 ①

-제가 알기에 암자에 불이 나고 바로 떠났다고 하던데…?

역시 조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정이 꾸었다는 꿈이 떠올랐다. 종정이 꾼 꿈. 그곳에서 보았다는 난타? 그 난타가 아들의 얼굴로 변하더라고….

고개를 갸웃하는데 조실의 음성이 뒤늦게 들려왔다.

-금어스님이 돌아가신 후 아들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그가 혹시 스리나가르로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스리나가르라고 한다면 그 성물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찾아 떠난 것 같다 그 말씀이군요?

-맞소이다.

문득 종정 예하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지안 금어의 아들이 생각났다. 갑자기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 자체가 꼭 뭔가 꾸며놓은 것 같지 않은가.

종정의 꿈. 스리나가르에 있다는 성물. 금어스님의 죽음. 스리나가르로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금어스님의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에이 설마….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종정 예하도 금어스님이 불에 타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는지요?

조실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지안 스님이 종정 예하의 근영을 그린 적도 있고 해서….

-그랬군요. 그럼 금어스님의 아드님이 그 성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갔다는 것도 말씀드렸나요?

-그랬소. 예사롭지 않다고 하자 웃으시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만 하더이다.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그럼 전혀 우연은 아니다. 언젠가부터 부처님을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종정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스리나가르의 성물을 떠올렸을 것이 뻔하다. 그러다가 그 성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지안 금어를 자연스럽게 연관시켰을지 모른다. 아버지가 죽은 뒤 아들이 성물을 찾으러 떠나자 자연스럽게 아들을 연관시켰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종정 예하의 뇌가 그려낸 시나리오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조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사실 이곳으로 온 것은 금어스님의 죽음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 조실스님께서 보낸 이상스러운 밀봉과 메일 때문에….

조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스리나가르의 그 성물을 말하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저희 신문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그 성물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성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긴 한데 피상적인 것이라….

-궁금하군요.

-그 성물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소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난타와 손타라의 전설이지요.

-난타와 손타라? 저는 그저 부처님이 아난타에게 남긴 성물이라 알고 있는데요.

종정이 꿈에 난타를 보았다는 말을 떠올리며 내가 그렇게 말하자 조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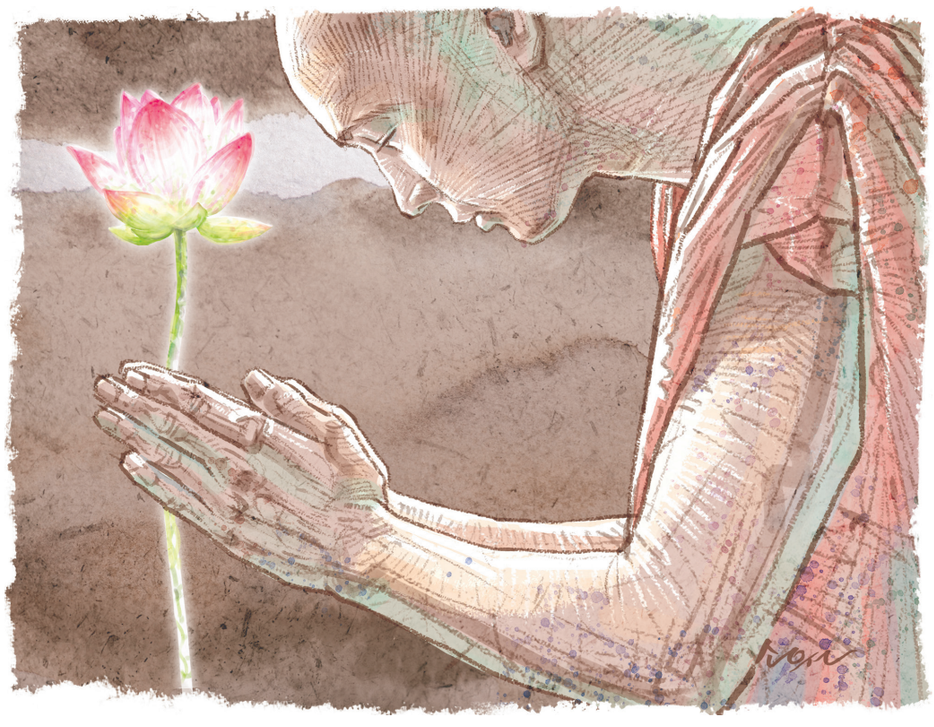
-법의 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 가면 심검당이 있고 그 칼이 취릉검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취릉검에 대해서는 취재한 적도 있고 해서 그것이 법의 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전했다는 그 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지라….

그랬다. 부처님이 칼을 남기셨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기자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그런 칼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기가 처음이었다. 그런 칼이 정말 인도에 있었다면 왜 몰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사찰에 가면 심검당이라는 전각이 있기는 하다. 거기 모셔진 칼이 취릉검 즉 취모리검이다. 그러나 그 칼은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남기신 칼은 아니다. 법의 칼이라고 하지만 선승들이 구족해야 할 지혜의 작용을 '검'에 비유한 상징적인 것이다. 고래의 기록을 살펴봐도 주로 중국의 선승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벽암록〉 제100칙에 보면 파릉 화상의 취모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어떤 스님이 파릉 화상에게 질문한다.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파릉 화상이 대답한다.
-산호의 가지가지마다 달이 달려 있구나.
擧. 僧問巴陵.
如何是吹毛劍.
陵云.
珊瑚枝枝撐著月.

그 외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보이는데 〈선어록〉에도 있고 〈유마경〉에도 있다. 〈임제록〉, 〈증도가〉, 〈연등회〉는 물론 〈조당집〉에도 보인다. 부처님이 남기셨다는 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의 전문적인 지식이 짧아서일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 부처님께서 남겼다는 설은 어디에도 없다. 곳곳에 선승들이 반드시 구족해야 하는 지혜 작용을 활인검(活人劍)에 대해서 표현해 놓았을 뿐이다. 두껍기로는 철위산 위의 무쇠와 같고, 얇기로는 쌍성선(双成仙)의 몸에 걸친 비단 같다고 노래하는 이도 있다. '광채가 만상을 삼켰다' 라고 노래하는 이도 있지만 부처님이 남겼다는 칼에 대해서 노래한 곳은 없다.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뒤늦게 조실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소이다. 나도 취릉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오니까 부처님께서 남기셨다는 칼이 존재하더만요. 그래서 그 칼이 취릉검이 아닌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더이다.

-사연?

-그렇소이다. 사연이 있어도 모진 사연이 있더이다.

-궁금하군요. 좀 전에 난타라고 했나요?

-그렇소. 난타. 난타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이복동생 아니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소이다. 부처님의 이복동생이지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고국을 찾았을 때 그는 막 결혼했던 참이었다고 하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소.

나는 무슨 소린가 하며 송 서화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도 고개를 갸웃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정작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실스님의 말이 사이를 두었다가 이어졌다.

-부처님이 고국을 찾자 부처님의 거룩함에 대부분 출가의 염을 일으켰는데 유독 난타만이 출가를 거부했다고 하오. 그래 특별히 부처님이 그를 제도하셨다는데 그때 부처님이 난타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남긴 것이 지금 스리나가르에 묻힌 칼이라는 것이오.

비로소 왜 종정 예하의 꿈에 난타가 출현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성물이 난타와 관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종정 예하는 이지안 금어의 아들이 왜 암자에 불을 질렀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난타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 종정이 금어스님의 아들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이 그만큼 강렬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실스님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 양반의 죽음도 그 성물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관련?

말이 이상하여 내가 중얼거리듯 되물었다.

-그렇다는 말이외다.

-예?

-그 성물로 인해 이상한 그림에 미쳤으니까.

-이해가 잘되지 않는군요.

어찌 그렇지 않겠냐는 듯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성물 때문에 그분이 이상한 그림에 미쳤다니요?

나는 익히 들은 말이었지만 멍하니 조실스님을 쳐다보며 물었다.

조실스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 어디서부터 그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표정이었다.

조실스님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후 눈을 떴다. 어느새 입가에는 풀썩 쓰러지는 듯한 한숨이 물려 있었다.

-처음엔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오. 이곳에서 좀 떨어진 암자에 주석했는데 아드님과 함께 머물렀소.

-그랬군요.

-금어스님의 아들 이름이 이석원이오. 보름에 한 번씩 양식을 가져다주곤 했었는데 하루는 가보니 그 양반이 이상했었소.

-금어스님이요?

-지안 스님 말이외다.

-이상하다니요?

내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양반의 정신상태가 여느 때 같지 않았단 말이오. 나이가 많기도 하였지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나요?

내가 나직이 되물었다.

조실스님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바로 스리나가르에 묻힌 칼 이야기를 엉뚱하게 자주 하는 것이오.

-무슨 인연이 있나 보군요?

-그걸 어이 알겠소. 가끔 작업을 하다가도 그 성물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처님은 그리지 않고 그 성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오.

-부처님을 그릴 곳에 칼을 그렸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소.

조실스님의 대답을 들으며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글쎄…?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미쳤다고 했소. 미쳤다고 할 수밖에.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달라고 하면 칼을 그려 주었으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금어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칼을 그린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부처님 대신에 칼을 그렸다면 정상은 아니다. 지혜의 검이 곧 부처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에 다가가려는 방편이지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 칼을 그렸다? 왜?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라 성배의 대상이 되지만 칼이 성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모셔질 자리에 칼이 모셔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절에 심검당이라는 전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이 계실 자리에 칼이 앉는다는 건…. 허허 아무튼 그랬소이다. 그러다가 화재로 돌아간 것이요.

-아들이 불을 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 테지요?

내가 물었다.

조실스님이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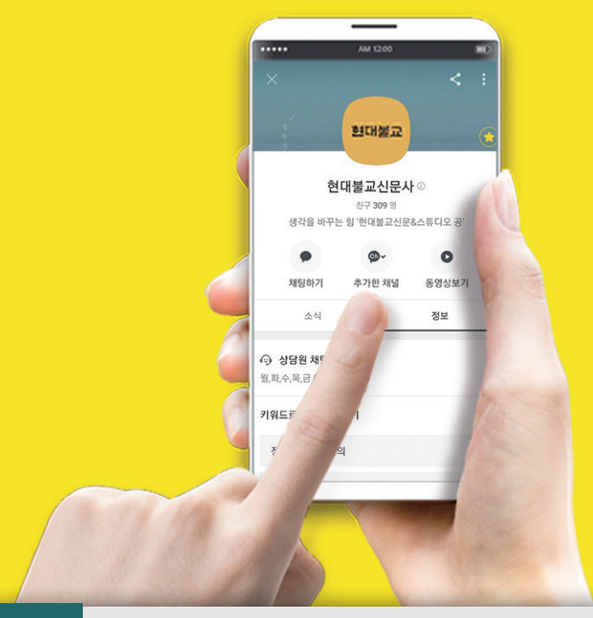
이외에도 그의 음성이 단호했다.

금어가 그리라는 부처님의 존상은 그리지 않고 그 대신 칼을 그려대니 혹시 아들이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나는 "네?"하고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